

이슈브리프 18-40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특징과 향후 관심 포인트

ISSUE
BRIEF

2018

09



국가안전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본 이슈브리프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간담회('18.9.11)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특징과 향후 관심 포인트

북한연구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북한 정권수립(9.9) 70주년 행사가 모두 끝났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권수립 70주년을 ‘대경사’로 경축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그리고 뿔불야회 등 화려한 공연들을 통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였다. 규모와 형식은 지난 2월에 개최되었던 건군절(2.8) 행사와 대동소이하였으나, 작년 김일성 생일(4.15) 105주년 행사 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었다. 정권수립 70주년에 어울리는 대규모 행사를 예상했지만,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식이라는 대내 행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표현 없는 비핵화 의지 시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핵화 표현 없는 비핵화 의지 시현’이다.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기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그 누구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핵·미사일과 관련된 그 어떠한 무기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가 열병식에서 사라졌으며, 전략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의 비중도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그리고 뿔불야회에서 대미 비난이 사라졌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 무언(無言)의 메시지로 확인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대미 유화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축사를 하지 않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경축사로 대체한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축사를 직접 발표할 경우 경축사의 내용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표명한 유화적 메시지들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 행사에서 직접 비핵화를 표현하길 희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응하기 어렵게 만든 북미교착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권수립 7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북미협상 전망의 불투명성으로 경제적 성과 획득이 불확실해진 상황 역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관계 중시와 남북·북일관계에 대한 고려

북한은 북중 ‘혈맹’ 중시 차원에서 열병식을 통해 이례적인 퍼포먼스(performance)를 연출하였다. 북한의 역대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던 해남도전선부대 종대와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 종대가 이번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들 부대들은 국공내전 당시 북한의 대중 군사지원의 대표적 사례들이며, 주석단 앞을 지나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었다. 북한은 정권수립일 다음날에는 리잔수 상무위원장을 위한 단독 공연과 연회를 베푸는 등 국민급 예우를 통해 북중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 행사를 통해 북중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북일관계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는

ICBM과 SLBM 등 전략미사일 뿐만 아니라 단·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략미사일이 미국을 사정거리로 두고 있다면, 단·중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 등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이다. 열병식에서 단·중거리 미사일이 사라진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과 미래의 북일관계 개선을 고려한 북한의 사전 포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ICBM+ ∞ ’ 해결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핵과 ICBM’ 의제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우발사고 대비 녹화중계와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 장성급 인사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중계방송을 생방송 대신 녹화방송으로 진행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행사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할 때 생중계를 예상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이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열병식 생방송을 선호했으며,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부터 모두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올해 이루어진 건군절 열병식부터 각종 우발사고 발생을 우려하여 녹화방송으로 복귀하였다. 아마도 작년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군호’ 탱크가 고장으로 대열에서 이탈한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정권수립 70주년 행사는 김정은의 치적 과시 차원에서 오점이 드러나지 않는 원활한 행사 진행이 긴요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권수립 70주년 행사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기념일 바로 전날 단행된 군부의 장성급 인사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등극(’91.12.24) 이후 주로 최고사령관 명의로 장성급 인사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전례를 깨고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의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북한은 장성급 인사에 전시 직책인 최고사령관 명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전시동원체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늠할 향후 관심 포인트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남·북·미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까? 한반도 정세변화를 가늠할 향후 관심 포인트로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던 북미관계가 서서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의 전략무기 미등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확대시킬 것이며, 이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남북 정상회담(9.18~20)과 한미 정상회담 사이에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함께 2018년 4차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중국책임론 공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조기 방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관계 긴밀화 추세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한 북중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주시한 후 북중은 정상회담 일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심 포인트는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여부이다. 아마도 이번 3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핵 신고서 제출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일 것이다. 정권수립 70주년 행사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표현 없는 비핵화 의지 시현’은 남북 간에 비핵화 실천 방안 논의를 위한 분위기를 호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열병식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미등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 또는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정권수립 70주년 이후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내부 정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 수립 70주년 총화와 2019년 사업방향 제시를 위해 당 창건 기념일(10.10) 계기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정치국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전원회의 또는 정치국 회의를 통해 ‘군부 3인방’(김수길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을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할 수도 있다. 최근 약화되고 있는 군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3명 모두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김수길은 총정치국장 위상을 고려할 때 정치국 위원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군부 3인방’의 정치국 위원 보선과 함께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된 노동당의 방침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행사 이후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빅 이벤트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당사자이자 촉진자이며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